

## 광화문역~종각역 지하 보행로 연결

# “1호선·5호선 환승 효과 극대화”

**서울시**

도계위 열고 정비계획안 수정 가결  
총연장 155m, 폭 6m 지하도로 설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이 지하 보행로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광화문역과 종각역 사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의 청진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1979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고시됐다. 애초 이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보행로로 연결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구의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단절 구간이 생겼다. 현재 총 14개 지구 중 9개 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시는 단절된 지하 보행 통로를 연결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한다. 광화문 지하도로에서 청진공원 하부를 통해 그랑서울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55m, 유효 폭 6m의 지하도로를 설치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통과로 서울 도심부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며 “보행 편의뿐 아니라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환승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 도계위는 강동구 삼익파크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도 수정 가결했다. 강동구 길동 54번지 삼익파크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번 심의통과로 삼익파크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6%, 1665세대(소형임대 17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된다. 1984년에 지어진 삼익맨숀 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9%, 1169세대(소형임대 15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된다.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 2942.7㎡를 종합의료시설로 편입해 지하 6층~지상 6층 규모의 외래센터동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연내 교통영향 평가 심의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외래센터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2호선 노후전동차 신형으로… 소음·전력소비 ↓

**서울교통공사** 2022년까지 모두 교체  
공기질 개선장치 칸당 2대→4대로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2호선 노후전동차 460칸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교체 대상 460칸 중 200칸은 작년에 교체했다. 올해 반입 예정인 100칸 중 60칸은 이미 차량기지로 입고됐다. 공사는 연말까지 신형 40칸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연내 2호선 노후전동차 460칸 중 300칸(65%)이 교체된다.

내년에는 신형 114칸이 들어온다. 이어 3차분 46칸이 2022년 3월까지 반입될 예정이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전체 대수는 794칸으로 이 중 334칸은 2005~2008년에 들어온 것이어서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호선 신형 전동차 외관. /서울교통공사

공사는 폐쇄회로(CC)TV 설치수량을 칸당 2대로서 4대로 늘려 사각지대를 없앴다. 공기질 개선장치도 칸당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모터의 특성을 이용해 정차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회생제동 최적화 기술을 적용했다. 공사는 전동차 교체로 정차소음 감소, 전력소비량 절감, 정위치정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모터의 특성을 이용해 정차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회생제동 최적화 기술을 적용했다. 공사는 전동차 교체로 정차소음 감소, 전력소비량 절감, 정위치정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전동차 내부와 외부 디자인도 달라졌다. 전면부에 과감한 곡선형 디자인을 입히고 시각적으로 하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연결통로 벽면과 입석손잡이에는 2호선의 노선 색인 초록색 계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차분 신형전동차에서 선보였던 시설물은 2차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넓어진 객실의자(7인석→6인석), 비상탈출용 사다리, 출입문 개폐표시등, 발광ダイ오드(LED)등, 객실안내표시장치 추가 설치(칸당 4대→6대) 등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간 연결통로 문턱 제거와 너비 확장(780→1200mm)도 동일하다.

공사는 4·5·7·8호선 1304칸도 교체할 예정이다. 5·7호선 신형전동차 336칸은 올해 5월 계약을 마쳤고 4호선 210칸은 연내 발주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3기 신도시는 미래 자족형 도시로 조성”

**경기도** 신도시 테스크포스 구성  
교통 등 16개 분야 특화방안 마련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진 중인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1·왕숙2, 하남 교산, 과천 등 4개 지구, 10

만500호 건설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행정 지원을 맡았다.

이 중 하남 교산, 과천 등 2곳은 경기도 도시공사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행자 간 통합적인 소통창구 역할을하게 된다.

TF 구성 후 6일 처음으로 열린 회의

에서는 자족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사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수단)와 친환경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 등 미래 신교통수단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 철도·간선급행버스(BRT)·버스 등 광역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적정·적기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는 교통·자족·계획·시행·행정지원·특화 등 16개 분야로 앞으로 논의를 거쳐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특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



DDP LIGHT 해외 메인 작가 대표 작품.

/서울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거대 캔버스로 변신

겨울 빛 축제 ‘DDP 라이트’ 개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가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DDP 건물 전면을 대형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겨울 빛 축제 ‘DDP 라이트(LIGHT)’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서울 해몽’이다. 시는 DDP 외벽에 서울과 동대문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시각화한 콘텐츠를 전시 한다. 터키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디자이너 레픽 아나돌이 메인작가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 전문가인 민세희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축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영상예술이다.

서울시는 DDP 라이트를 매년 진행해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 허수아비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 한정해야

‘희소성의 원칙’ 활용시 실적 우수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려면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행동 경제학적 처방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율과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23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정책 참여자를 한정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실적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연간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참여하면 3000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 세·지방세 납부, 도서·문화상품권 구

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차량 5만1247대 중 2만3436대가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는 전체의 45.73%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상액 2배로 확대(경제적 인센티브) ▲미참여 시 발생하는 손실액 강조(손실 프레임) ▲보상액 선 지급 후 미달성 시 인센티브 회수(손실회피) ▲확률적인 선택에 의한 보상금액 변동(불확정 보상) ▲극소수에게 만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 강조(희소성) 등 5가지 조건에 따라 시민 참여도와 실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희소성 원칙을 활용한 실험 조건에서 참여율(7.9%)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7.5%), 손실 프레임 적용(6.9%), 불확정 보상(5.0%), 손실 회피(4.4%)가 뒤를 이었다. /김현정 기자

## “눈 감아도 볼 수 있는 박물관 생긴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옛 풍문여고 터에 내년 개관 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개발에 나선다.

서울공예박물관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 전시 개발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용 전시와 박물관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서울공예박물관 시각장애인 전시 개발 연구개요 발표 ▲촉각전시 및 복합감각 전시 기법 소개 ▲포용적 박물관 설계 방법 안내 ▲유니버설 전시 및 프로그램 연구 사례 발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예시. /서울공예박물관

▲국내외 전문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예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이 전시장에 있는 공예품을 감상하고 학습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로는 손으로 작품이나 모사품을 만지고 느끼는 촉각 전시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